

1991년 12월 18일 제122회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

○ 일시: 1991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30분 개회

○ 발언자:

- 도모토 아키코(堂本曉子)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참의원 의원, 지바현(千葉縣) 지사)
- 다니하타 다카시(谷畑孝) 의원(일본사회당 소속 중·참의원 의원, 후생노동부대신)

○ URL: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12214306X00519911218&spkNum=19¤t=29>

○ 해제(개요 및 특징)

사회당의 PKO 법안 발의자인 도모토 의원은 12월 8일 방영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관련 TV 방송에서 종군위안부의 비참하고 가슴 아픈 영상에 대해 잠깐 언급함. 다니하타 의원은 심포지엄에서 재일한국인의 발언이 당시 진행되고 있는 종군위안부의 소송 사건과도 겹쳐져서 더욱 강력한 호소로 느껴졌다고 일회적으로 언급함.

○ 주요 내용 번역

▷ **도모토** “사회당의 평화협력 활동 등에 관한 법안 발의자 도모토 아키코입니다.

12월 8일 TV 를 통해 일중전쟁 그리고 태평양전쟁에 관한 다양한 영상이 방송되었습니다. 너무나 비참한 영상을 보고, 반세기가 지났지만 나도 모르게 같은 일본인으로서 눈을 가리고 싶은 장면도 많았습니다. 전쟁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도 없다는 점을 재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같은 여성으로서, 조선반도에서 강제연행된 **종군위안부**에 관한 영상도 매우 비참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전후 3년이 지난 1948년에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것은 그런 의미에서도 당연한 귀결이 아니었을까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 **다니하타** “매우 정중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화제를 되돌려서 미야자와 총리, 일전에 참의원에서 PKO¹⁾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일단락되고, 마침 다음 다음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진주만 공격 50주년, 그리고 류타오후 사건 60주년을 맞이하여 각지에서 기념식과 심포지엄이 열

1) PKO : Peace Keeping Operation. 유엔 평화유지활동.

렸습니다. 저도 저의 지역인 오사카(大阪)로 돌아가 몇 개의 심포지엄을 계속 둘러봤습니다. 그때 많은 분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PKO 법안²⁾이 가장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인상에 남았던 것은 재일한국인 여러분의 심포지엄에서의 조언자라고 할까요, 혹은 주최자라고 할까요, 그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매우 강하게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중군위안부**분들의 소송도 있는 데다, 그 소송과도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거기에서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우리는 50년도 60년도 아닌, 1910년에 일본이 일한병합(日韓併合)이라고 하는 것, 한국과 조선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년이나 60년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의미에서는 역사가 길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야자와 총리의 제3국인(第三国人) 발언도 조금 다뤄진 것 같습니다만, 이 경우도 단순히 말에서 그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봐야겠죠.”

2) PKO 법안 : 1992년 6월 19일에 최종 공표된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의 법안. 일본 자위대를 PKO에 참가시켜 해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